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최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마나
KAPE의 발견 2



The 8th Korean Collegiate Meat Judging Competition

2018. 5. 30.(수) 서울특별시 (목) 축산물품질평가원, (목) 팜스토리한냉

축산물품질평가원

팜스토리한냉



한국축산식품



소 부문 대상 원준필·전주영 학생과 박종윤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제일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과장(우측 가운데)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소 부문 대상 수상 소감

고객홍보처

올해도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는 전국 축산 관련 학과 대학(원)생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1박 2일에 걸친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소·돼지 각 1점의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총 22점이 시상됐습니다.

최고상의 영예를 차지한 주인공은 건국대학교 원준필·전주영 학생, 이소민·박병규 학생팀이었습니다. 각각 소·돼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중 소 부문 대상을 차지한 건국대학교 원준필·전주영 학생의 수상 소감을 먼저 게재합니다. [▶](#)

제가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즈음이었습니다. 공고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하듯이 축산식품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본은 가축과 고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지 않은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회 접수를 마치고 필기시험과 면접과정 등 교내 대표 선발전에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 수업에 충실했으며 식품회사 인턴, 유제품 개발 인턴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2018년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조금씩 공부를 해왔습니다. 결국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축산물품질평가대회 건국대학교 대표가 되어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축산물 품질을 보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 자주 가서 배웠으며 축산물의 등급판정업무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것이나 평가사가 농촌 현장에 출장을 나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 부천축산물공판장에 도착해 소 도체의 등급판정업무에 대해 교육 받을 때 도축장 특유의 냉랭한 분위기와 예냉실의 차가운 온도, 특히 레일에 걸린 엄청난 크기의 소 도체에서 피가 떨어지는 모습은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최장근 단면의 마블링을 보는 순간 머릿속의 저는 이미 그 등심을 굶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가 우리에게 주는 맛있는 고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현장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소 도체 등급판정업무에 대해 숙달하는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소 1두 판정하는데 세월아 내월아 하며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1분 내외로 평가를 마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회에서 소 1두당 평가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3분이었지요. 저희 '고기아이머니?'팀은 실제 연습 시 소 1두당 2분에 맞추어 소 도체 등급을 판정했습니다.

시간 내에 맞추어 판정을 하려다보니 등지방두께나 등심단면적 넓이, 성별도 가끔씩 틀리고 제일 중요한 마블링스코어를 맞추는 것이 예상 외로 힘들었습니다. 조건표(근내지방도 기준이 되는 사진)와 비교해서 보아도 1+인지 1등급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원 정희용 평가사님께서 도체별로 이견 왜 1+이고 저건 왜 1등급인지 확실한 기준을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순간 저 또한 평가사님이 판정하는 것만큼 마블링스코어(근내지방도 번호)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약 30~40두, 총 9일 교육을 받았으므로 270~360두를 보고 만지고 배운 결과 레일에 걸린 소 도체를 1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위아래로 훑기만 해도 소의 성별이나 품종, 각종 결함상태, 성숙도 지방색, 육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단순히 등급판정업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국내 축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예를 들어 유통구조개선이나 친환경적인 사육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발전하는 축산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 소 부문에 참가해 운이 좋게 대상을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라기보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서 결과를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것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제7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안일하게 대회에 참여한 점이 컸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 소식에 나가고는 싶었으나 작년 대회 결과가 머리에서 맴돌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저와 매우 친하게 지냈던 동기인 '원준필'이라는 친구가 제게 먼저 대회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저 때문에 떨어졌던 것이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나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아 없냐?'라는 말을 연거푸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필이는 고맙게도 제게 '어차피 나는 너랑 이번 대회를 나가고 싶었고, 떨어지더라도 너랑 나간 것이 의미가 있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는 저도 마음을 열고 대회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대표 선발전을 작년처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제 팀원인 준필이가 크게 보완해줄 수 있어서 본선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행운을 만났습니다. 저희 팀의 교육을 맡게 된 교관인 정회용 평가사님입니다.

교육 등을 받은 경우를 기억해보면, 저는 맺고 끊음이 명확하고 평소에는 냉정하시지만 나름 또 챙겨주시는 분 아래에 있을 때 제일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곤 했습니다. 교관님을 제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내심 그런 분이 저희 팀을 교육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정회용 교관님께서도 제가 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우 유능하시어 우승팀도 많이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자극 받아 '이번 대회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좋은 느낌이 들어! 나도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마웠던 사람은 추유지 평가사입니다. 추유지 평가사는 같은 학과 출신으로 앞서 졸업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창입니다. 제가 학과 생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갑게 챙겨주며 필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나름의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보내준 것, 이번에 국제대회 참가 지원한 세계 영어 면접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것 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번 대회 참여에 있어서 노력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 틀어져 있었는데 조언 받은 방향으로 선회하여 공부를 하고 방대했던 것에서 확고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언급한 분들 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만 말을 줄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셔서 항상 인내해주셨던 어머니, 자극을 주셨던 아버지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